



08-51 (통권 329호)

2008.12.29.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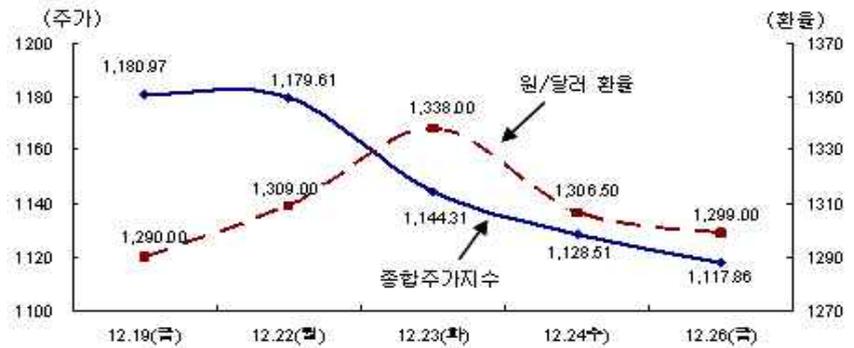


■ 중소기업 위기극복 핵심과제

- '고용투자금융' 과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해야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9~12.26)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소기업 위기극복 핵심과제	1
[별첨] 독일 연방부흥은행(KfW)의 ‘고용투자금융’ 소개	
주간 경제 동향	27
□ 실물 부문 : 하반기 실질임금 환란 이후 최악	27
□ 금융 부문 : 국채 금리 연중 최저치 경신	2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김 동 열 연 구 위 원 (3669-4112, dykim@hri.co.kr)
 표 한 형 연 구 위 원 (3669-4131, raisosa@hri.co.kr)

Executive Summary

□ 중소기업 위기극복 핵심과제

- '고용투자금융'과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해야

1.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소기업

전체 사업자 수의 99%, 종사자 수의 8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비중은 커졌으나, 질적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는 전체의 51%에 불과하며,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33%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연체율이 '07년말 1.0%에서 '08년11월말 1.86%로 크게 증가하는 등 외부의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강한 일본, 독일, 대만 등은 외부의 충격을 비교적 잘 흡수하고 있다.

지난 11월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단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강을 위한 '고용투자금융'과 더불어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통한 기술인력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해 보았다.

2. 중소기업 위기의 현상과 배경

2-1. 자금 경색의 현황, 원인과 문제점

최근 중소기업 자금조달 사정 실적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제조업 자금조달사정실적 지수는 지난 7월 69.5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호전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3/4분기부터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증가세가 급감하였다. 2008년 1/4분기에 15.1조 원, 2/4분기에는 19.2조 원을 기록하였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1.8조 원과 1.9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사채나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3/4분기 들어 1조 원을 넘어섰으나 대기업(9.1조 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내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업황 실적은 2008년 1/4분기 반짝 호조를 보여 4월에는 87까지 올랐으나 이후 부진을 보이면서 6월부터는 70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내수판매실적도 지난 4월 98을 정점으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9월 현재 87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원화 환율의 급등으로 KIKO가입 중소기업의 평가손실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KIKO가입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헷지

하기 위해 가입하였던 KIKO의 손실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6월말 원/달러 환율 1,046원 기준으로 한 KIKO의 평가손실 규모는 총 9,67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5%인 7,218억 원이다. 게다가, 146개 KIKO피해 소송업체의 추정손실은 원화 환율이 100원 오를 때 마다 약 3,300억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져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2008년 3/4분기부터 각 경제주체들의 신용위험 지수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대폭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4분기부터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가계에 대한 신용위험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2008년 3/4분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지수는 4분기 지난 2007년 4/4분기에 비해 22나 높아졌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08년 1월 7.4%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8월에는 7.5%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가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규대출 기피와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건설사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자금 조달의 큰 애로가 예상된다.

2-2. 인력 부족의 현황, 원인과 문제점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02년에 9.36%로 피크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져 2007년에 3.93%로서 표면적으로는 인력난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보면, 단순노무직(3.16%)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기능직(7.40%)과 전문가(4.97%) 쪽이 높게 나타나, 인력부족이 내용상으로는 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14.8%)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도 '손끝 기술'이 중요한 기능직의 이직률(16.6%)이 상당히 높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대기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지난 1년 동안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1.9~2.4년 증가한데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0.4~1.3년 증가에 그쳤다.

중소기업 인력부족이 내용상 악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인구의 감소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의 신규 진입인력을 감소시키고, 특히 청년층 기능직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인구는 '95년 1,259만 명에서 '05년 1,075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184만 명이나 감소했다.

둘째, 인력양성의 불일치다.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05년도에 68%로 높아진데 비해 취업률은 28%로 크게 낮아져 기초 기능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졸업생 숫자가 최근 5년간 12만 명 감소했으며, 그 중 대부분(10만2천 명)이 취업자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셋째, 낮은 처우수준과 열악한 작업환경이다. 2007년의 경우, 5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10~29인 규모 기업의 임금은 59.9에 불과

하다. 기업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소규모 기업일수록 재해율과 사망률이 커지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정부 정책의 한계와 보완 과제

■ 중소기업 정책의 평가와 한계

정부는 올해 20여 차례의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이후에는 **중소기업에의 유동성 확대 등 다각도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즉,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책은행에의 출자, 신보의 보증여력 확충, 총액대출한도 확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 신속지원(Fast-Track) 절차 발표 등 다각도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내려가고 있는 **시중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소기업의 신용 보강을 위한 조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은행과 중소기업의 여신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 정책의 보완 과제

첫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낮춰주는 가칭 '고용투자금융'을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의 2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1인당 10만 유로, 사업별 최대 400만 유로의 여신(50%는 무담보 후순위론(자본금 보장효과), 50%는 담보부 선순위론)을 10년간 제공했던 독일연방부흥은행(KfW)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칭 '중소기업 사회복지부제'를 도입하여, 실업계 고교생에게 가장 큰 차지 과제(취업, 병역, 대학 진학)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실업계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사회복지(병역근무)로 인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의 급여를 학비로 적립하여 대학 진학시에 지원하면, 정부의 추가적 예산지원이 필요 없다.

셋째, 정책금융의 확대다. 중소기업 금융의 특성상 경기요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정책금융에 크게 의존하므로, 정책금융을 경제규모에 맞게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규모는 '05년 3.16조원에서 '08년 2.63조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3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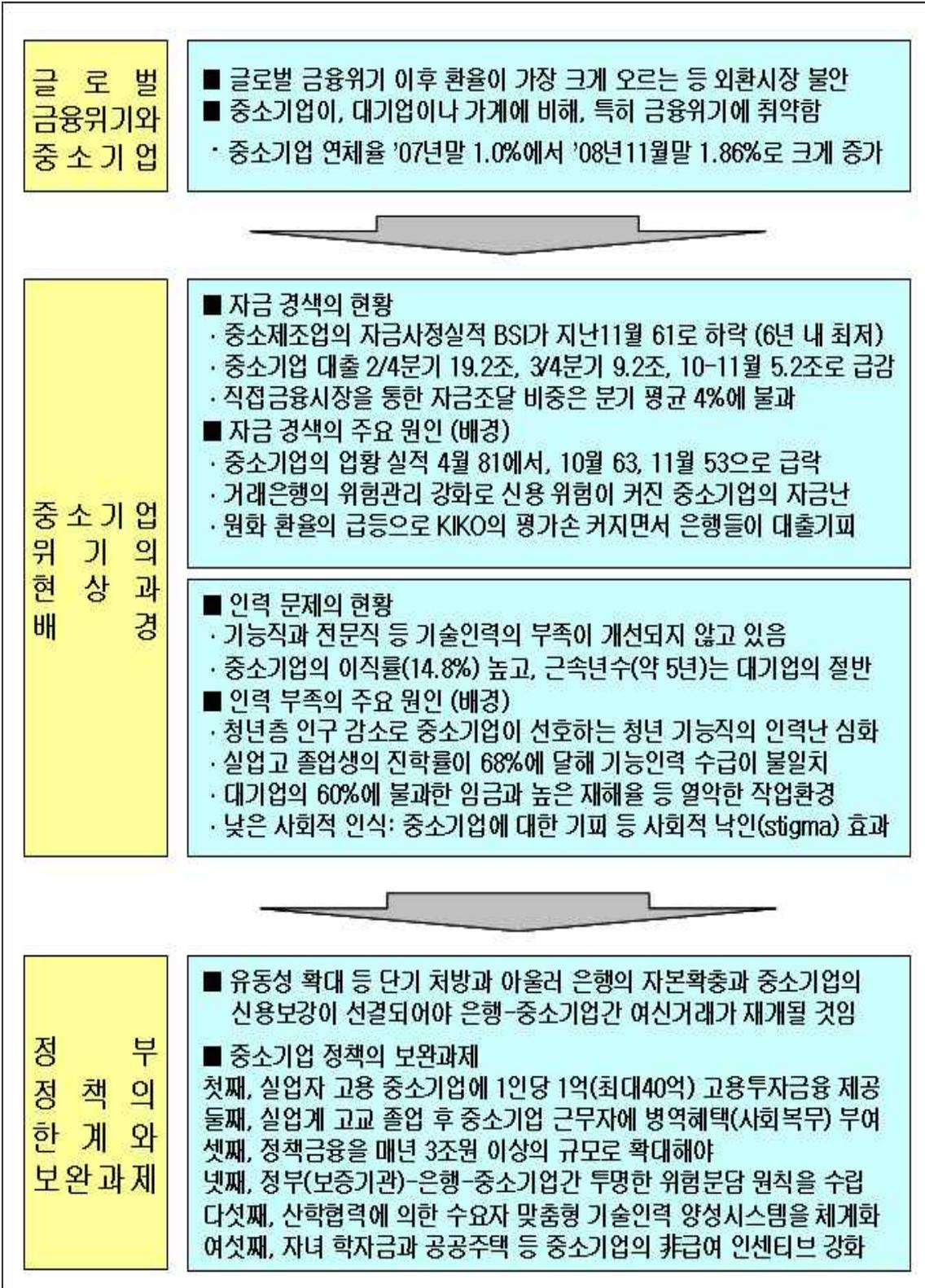
넷째, 정책금융의 투명한 리스크 분담이다. 리스크관리가 쉽지 않은 정책금융의 특성상, 그 위험을 정부(보증기관)-시중은행-수혜기업의 3자가 투명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다섯째, 수요자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수요변화와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능별 학력별로 분절되어 있는 인력 공급 체계를 산학협력에 의한 수요자 맞춤형 공급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현장과 실업교육 기관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산학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며, 중소기업근로자의 상시적인 보수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 근로의 '非급여'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과 공공주택 분양, 자녀 해외연수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회와 혜택이 우선 부여되도록 인센티브가 확충되어야 한다.

< 중소기업 위기극복 핵심과제 >

- ‘고용투자금융’ 과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해야



1.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소기업

○ (연구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대책을 비롯한 단기 대책¹⁾이 수차례 발표되었는바, 자금대책과 더불어 기술인력 지원을 비롯한 근본적인 경쟁력강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기임

-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에의 기술인력 지원방안 등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대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금융위기와 중소기업) 대공황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 불리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는 외부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²⁾이 증폭되면서 올해 연초 대비 환율이 40% 상승했으나,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강한 일본, 독일, 대만 등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음

< 美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의 환율상승 및 하락률 >

환율상승(평가절하)	국가	환율하락(평가절상)
+40.2% (938/\$~1,315 /\$)	한국	
+33.4% (1.303/\$~1.738/\$)	뉴질랜드	
+33.0% (0.503/\$~0.669/\$)	영국	
+28.7% (1.141/\$~1.468/\$)	호주	
+5.0% (0.684/\$~0.718/\$)	유로(Euro)	
+1.4% (1.4393/\$~1.4589/\$)	싱가포르	
+1.4% (32.50/\$~32.94/\$)	대만	
	홍콩	-0.6% (7.80/\$~7.75/\$)
	중국	-6.3% (7.30/\$~6.84/\$)
	일본	-21.0% (112.93/\$~89.26/\$)

자료 : 한국은행(ekos.bok.or.kr).

주 : 미국 달러화 대비 2008년 1월2일과 12월22일(월)의 증가를 비교한 수치.

1) 11월3일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10여 차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발표됨.

2) 우리 외환시장의 큰 변동성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2000년 78.5%에서 2006년에는 85.3%로 상승함.

-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시화하면서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외부의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대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이 안정적임에 비해,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지난 11월말 1.86%로서 작년 말(1.00%)과 전년 동기(1.08%)에 비해 크게 상승했음

<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

(단위: %)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 6월말	2008년 9월말	2008년 11월말
대 기업	0.09	0.49	0.37	0.30	0.31	0.34
중소기업	1.55	1.07	1.00	1.14	1.50	1.86
가 계	1.12	0.70	0.55	0.52	0.58	0.66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

○ (중소기업의 개요) 과거의 소품종-대량 생산방식 하에서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유효했지만, 현재와 같은 다품종-소량 생산방식 하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8%, 제조업 부가가치의 51%를 차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룩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아래 표 참조)
-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은 대기업의 33%에 불과함

< 중소기업 관련 주요 지표의 연도별 추이 >

구 분		단위	2000	2002	2004	2005	2006	
전 산 업	사업체수	중소기업 (비중)	개 %	2,816,343 (99.2)	2,948,271 (99.8)	2,998,223 (99.8)	3,001,893 (99.9)	3,017,787 (99.9)
	종사자수	중소기업 (비중)	명 %	8,953,356 (80.9)	10,384,595 (86.7)	10,415,383 (86.5)	10,771,623 (88.1)	10,884,650 (87.5)
제 조 업	생 산 액	중소기업 (비중)	억원 %	2,675,619 (47.4)	3,189,619 (50.8)	3,834,964 (48.6)	4,187,524 (49.5)	4,474,499 (49.4)
	부가가치	중소기업 (비중)	억원 %	1,101,508 (50.2)	1,245,762 (51.7)	1,482,899 (49.4)	1,599,924 (51.5)	1,659,417 (51.1)
	인당부가가치 생산성	중소기업 (대기업과 격차)	천원 %	56,116 (35.4)	60,538 (32.2)	70,453 (31.3)	73,761 (33.1)	75,690 (33.2)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전산업은 종사자수 1인이상, 제조업은 5인이상 기준.

2. 제조업의 대기업과 격차는 대기업이 100일때 중소기업의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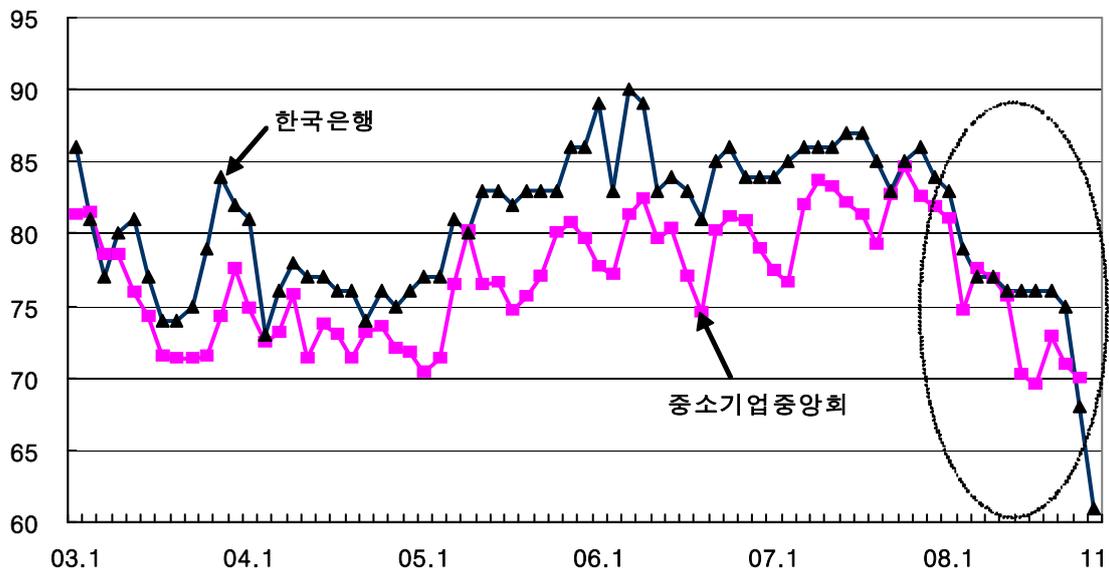
2. 중소기업 위기의 현상과 배경

2-1. 자금경색의 현황, 원인과 문제점

○ (중소기업 자금조달 BSI 크게 악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실적³⁾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제조업 부분의 자금조달 사정이 2007년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8년 말에 크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제조업 부분의 자금사정 실적은 2007년 11월 86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2008년 11월에는 61까지 매우 큰 폭으로 떨어졌음
 - 중소기업중앙회의 자금조달사정 실적도 비슷한 행보를 보여 2007년 10월 84.6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됨. 2008년 7월 69.5로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월엔 69.9를 기록하는 등 70내외에서 움직임.

< 중소기업 제조업 부분의 자금사정 실적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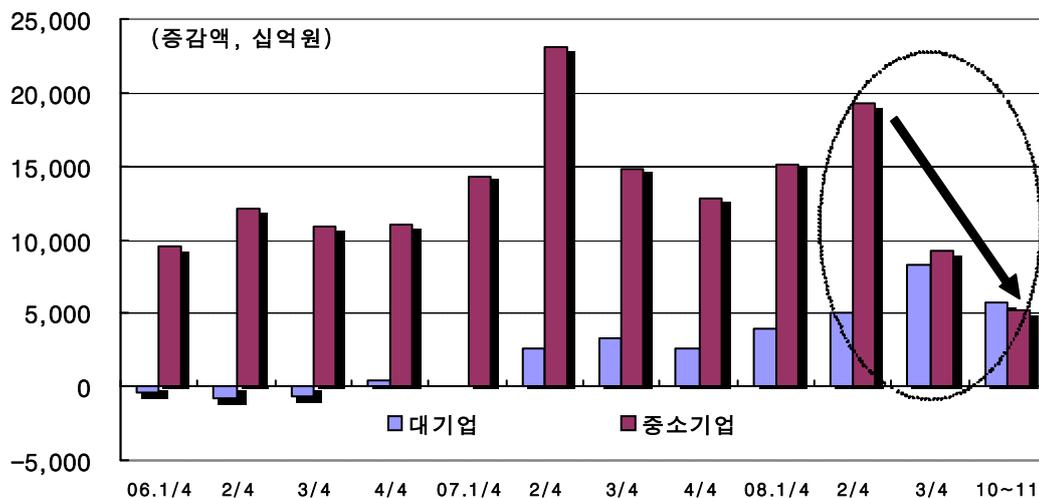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Ecos.

3) 중소기업 제조업 부분에 대한 기업경기조사(BSI; Business Survey Index)는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 두 기관에서 이루고지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자금조달사정 실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에서는 '자금사정 실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 (은행으로부터 대출 급감)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급감하고 있음

- 2008년 3/4분기부터 은행들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는 급감하고 있음
 - 은행들의 대기업에 대한 증가 규모는 2008년 1/4분기 3.9조 원에서 2/4분기에는 5조 원을 돌파하였고, 3/4분기에는 8.2조 원이나 증가
 - 이렇게 대기업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예비적 자금 수요 증가 및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대체자금 조달원으로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임
 - 반면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1/4분기의 15.1조 원, 2/4분기의 19.2조 원에서 3/4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해 10조 원이나 감소한 9.2조 원에 그침
 -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국내금융시장의 신용위험 증가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가 각각 1.8조 원과 1.9조 원에 불과하였음
 - 10~11월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 등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5.2조 원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대기업에 대한 대출 5.7 조 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은행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참조.

○ (직접금융 자금조달 부진)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저조

-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기업공개 및 유상증가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매우 부진함
 -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분기 평균 4%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활용도가 매우 낮음
 - 2008년 2/4분기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높아졌지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8년 3/4분기들어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한 데 따른 일시적인 반사 효과로 판단
 - 2008년 7~8월에만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 동 기간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의 10%를 넘어서며
 - 하지만 최근 국내 자금시장에서 유동성 악화를 우려한 시장 위험 증가로 시중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의 증가는 일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기업규모별 직접금융조달 추이 >

(단위: 십억 원)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7~8
주식	중소기업	45 (3.5)	83 (12.8)	87 (24.0)	107 (8.8)	75 (1.7)	79 (8.7)	67 (5.9)	267 (4.8)	84 (25.0)	179 (25.4)	86 (16.4)
	대기업	1,239 (96.5)	563 (87.2)	276 (76.0)	1,108 (91.2)	4,308 (98.3)	833 (91.3)	1,070 (94.1)	5,307 (95.2)	252 (75.0)	526 (74.6)	438 (83.6)
회사채	중소기업	120 (1.9)	44 (0.6)	120 (2.0)	93 (1.2)	80 (1.1)	255 (2.6)	183 (2.0)	246 (2.8)	19 (0.2)	461 (3.9)	1,020 (10.6)
	대기업	6,167 (98.1)	6,971 (99.4)	5,990 (98.0)	7,481 (98.8)	7,374 (98.8)	9,563 (97.4)	9,061 (98.0)	8,647 (97.2)	12,458 (99.8)	11,298 (96.1)	8,620 (89.4)
합계	중소기업	210 (2.8)	127 (1.7)	207 (3.2)	200 (2.3)	155 (1.3)	334 (3.1)	250 (2.4)	513 (3.5)	103 (0.8)	640 (5.1)	1,106 (10.9)
	대기업	7,406 (97.2)	7,534 (98.3)	6,266 (96.8)	8,589 (97.7)	11,682 (98.7)	10,396 (96.7)	10,131 (97.6)	13,954 (96.5)	12,710 (99.2)	11,824 (94.9)	9,058 (89.1)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은 비중임.

■ 중소기업 자금경색의 원인과 문제점

○ 내수부진, 거래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담보부족, 환차손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 등이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의 어려움이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들은 현재 자금난이 가장 심각한 이유로 내수감소를 53.8%로 가장 많이 지적
 - 거래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27.9%), 거래은행 대출기피(25.0%), 담보부족(22.1%) 등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차입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자금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대답
 -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원화 환율의 급등과 관련된 환차손과 KIKO 거래에 따른 손실(18.3%)을 꼽았음

< 현재 자금난이 가장 심각한 이유(복수응답)4) >

내수감소	거래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수출 감소	거래은행 대출기피	담보부족	환차손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53.8%	27.9%	26.9%	25.0%	22.1%	18.3%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최근 금융시장 불안요인 가중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영향 조사 결과”, 2008. 9.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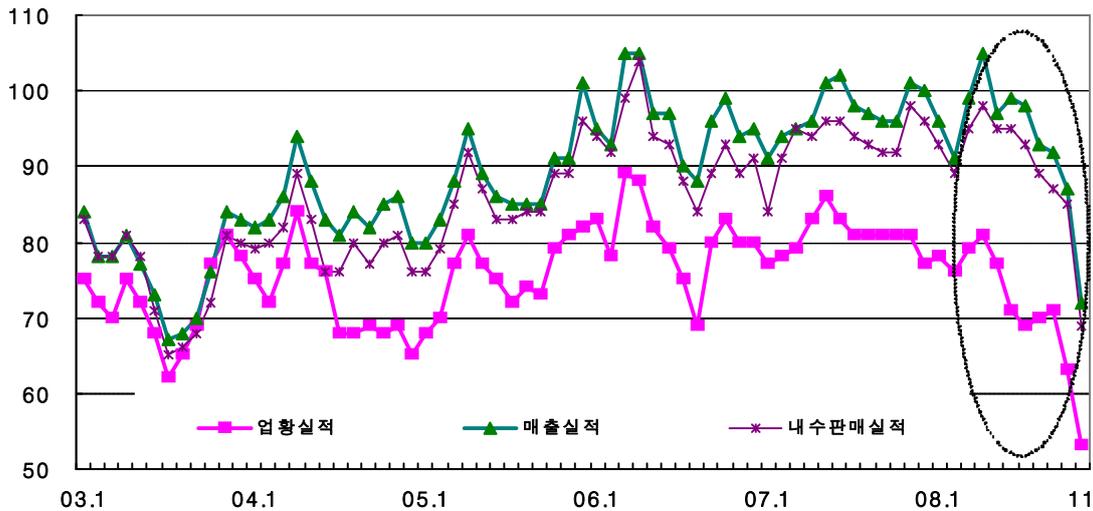
○ (내수감소) 4/4분기 들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내수 침체가 심화

- 2008년 2/4분기 중반부터 중소 제조업의 내수 판매 실적 및 매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업황실적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업황실적은 2008년 1/4분기 반짝 호조를 보여 4월에는 81까지 올랐으나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10월에는 63, 11월에는 53으로 급락하는 모습

4) 동 조사는 2008년 9월 23~24일 동안 중소제조업 15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 매출실적도 지난 4월 105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11월 현재 72로 떨어졌음
- 내수판매실적도 지난 4월 98을 정점으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11월 들어 급락하면서 69까지 떨어졌음

< 중소기업 업황, 매출 및 내수판매 실적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Ecos.

○ (KIKO 손실 기업의 흑자도산 가능성)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KIKO가입 중소기업의 평가손실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KIKO가입 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

- 원화환율이 하락할 때 수출대금의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헷지를 위해 가입 하였던 KIKO의 손실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키코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80개 피해업체 가운데 447개 기업 (91.8%)가 중소기업임
 - 2008년 10월말까지 확정손실 1.4조 원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는 1.02조 원으로 전체 확정 손실 규모의 69.7%를 차지
 - 10월말 원/달러 환율 1,291원 기준으로 한 평가손실 규모는 1.7조 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2%로 1.3조 원임
 - 최근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이 키코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⁵⁾

< KIKO 피해 현황 >

		업체수(개)	확정손실(억원)(A)	평가손실(억원)(B)	총손실(억원)(A+B)
6월말	중소기업	480 (92.4%)	4,169 (81.6%)	7,218 (74.5%)	11,387 (77.0%)
	대기업	39 (7.6%)	934 (18.4%)	2,460 (25.4%)	3,394 (23.0%)
	계	519	5,103	9,678	14,781
10월말	중소기업	447 (91.8%)	10,263 (69.7%)	13,596 (79.2%)	23,859 (74.9%)
	대기업	40 (8.2%)	4,452 (31.3%)	3,564 (23.8%)	8,016 (25.1%)
	계	487	14,715	17,160	31,875

자료 : 금융감독원, “KIKO 거래규모와 손익현황”.

주 : 6월말 원/달러 환율은 1,046원 기준이고, 10월말 원/달러 환율은 1,291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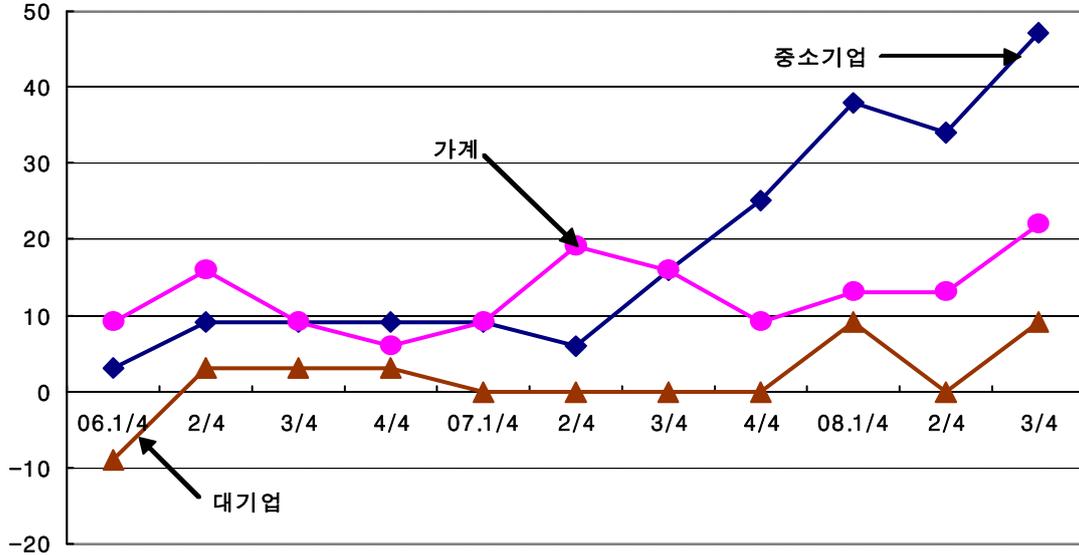
- 원화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키코 가입에 따른 손실이 급증
 - 키코 거래 현황을 처음으로 공식집계한 지난 6월말 기준 1조 4781억 원에 비해 116%나 늘어나고 있음
 - 11월 26일 환율(1,478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KIKO 손실 규모는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
 - 6월말 1조 1,387억 원 이었던 중소기업의 키코 손실 규모는 8월말 1조 2,846억 원으로 늘어났고, 10월말에는 2조 3,859억 원으로 더욱 확대

○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대출 기피) 국내 소비가 급감하면서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져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은행들의 대출 기피가 심화

- 2008년 3/4분기부터 각 경제주체들의 신용위험 지수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대폭 커진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4/4분기부터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가계에 대한 신용위험을 추월하기 시작
 - 2008년 3/4분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지수는 47로 지난 2007년 4/4분기에 비해 22나 높아졌음

5) 매일경제신문, 10월 9일자.

< 국내은행의 신용위험 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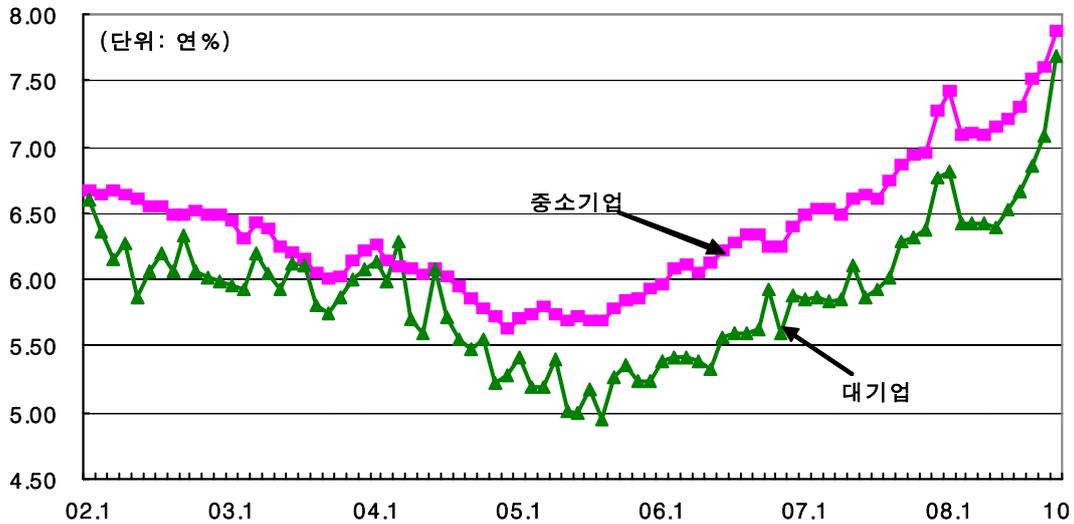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형태서베이 결과”, 보도자료 참조.

- 이와 같은 국내은행들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대출금리가 상승
 -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과 신용위험이 반영되면서 예금은행의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
 - 특히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08년 1월 7.4%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6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10월에는 7.86%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지난 9월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7%를 넘어섰고, 10월에는 7.69%까지 상승

-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간 스프레드 차이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및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국고채금리는 하락하는 반면, 신용위험 증가로 회사채 금리는 상승하여 스프레드가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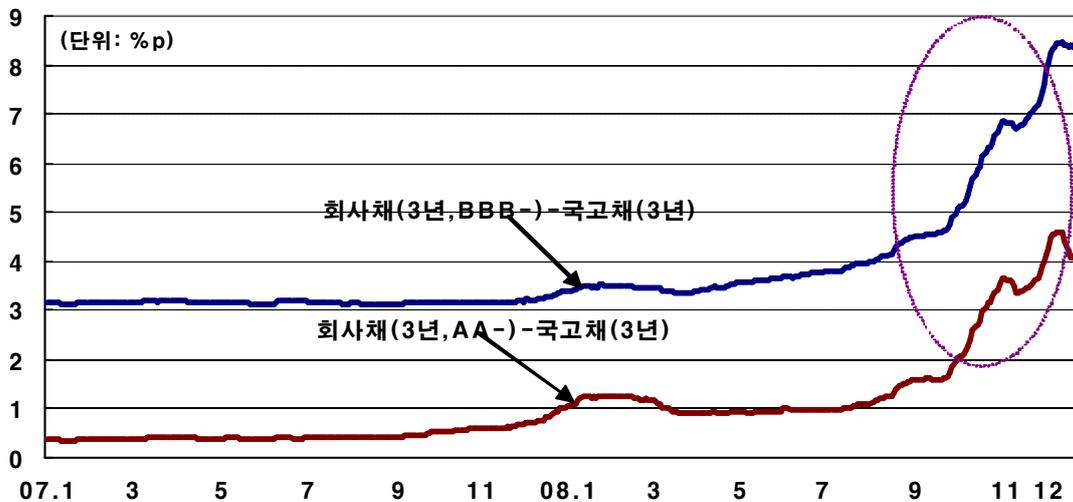
<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월평균 대출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 : 신규취급 기준.

-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발행하는 회사채(BBB-)의 경우 국고채금리와 스프레드가 10월 들어서는 5~6%p까지 확대되었음
- 12월 들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채권안정 펀드 조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회사채(BBB-)금리와 국고채금리의 스프레드는 더욱 확대되어 8%p를 넘어섬

<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 >



자료 : 증권업협회, <http://www.ksdabond.or.kr>.

○ (자금사정 전망)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더욱 강화되는 반면, 대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더 어려워질 전망

- (은행들의 대출 태도 강화 예상) 향후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은행들로부터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4분기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41로 3/4분기의 -34보다 7이나 낮아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국내 경기의 급냉 가능성 등으로 신용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⁶⁾ 추이 및 전망 >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¹⁾
종합	18	16	8	8	3	-1	-3	-19	-11	-13	-22	-27
중소기업	32	31	16	22	25	13	-13	-28	-22	-22	-34	-41
가계주택	-3	-3	-6	-9	-41	-25	-3	-13	-6	-6	-6	-9
가계일반	3	3	-3	3	9	3	3	-3	-3	-3	-13	-13
대 기업	12	19	3	6	0	0	-3	-13	-6	-13	-19	-28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기관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 2008년 10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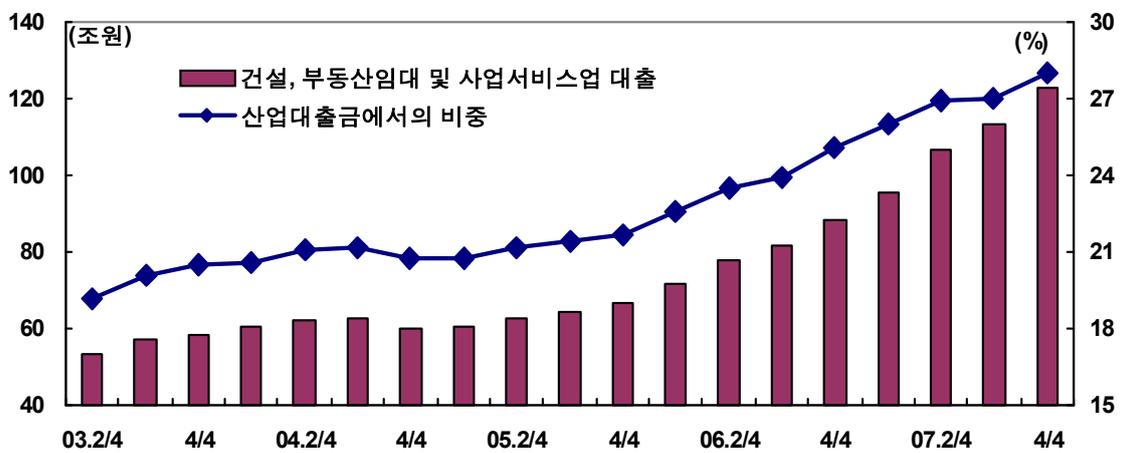
주 : 1) 한국은행 전망치.

- (중소기업 대출 수요 증가 예상) 향후 중소기업들의 대출수요 압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08년 4/4분기의 대출수요 지수는 3/4분기의 22보다 12나 높은 34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예상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의 대출수요 압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경기 및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 부진과 부족한 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출 수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6) 지수가 +이면 기준치(=0)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수보다 많음을, -이면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함

- 2007년말 현재 예금은행의 건설,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대출규모는 123.0조원으로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비중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2003년 2/4분기의 19.2%에 비하여 9.8%p나 높은 수준임
- 따라서 향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 대출 기피와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자금 조달에 큰 애로가 예상됨

< 예금은행의 건설,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대출 규모와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에서 건설,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대출규모 및 비중 추이

< 국내은행의 대출수요지수 추이 및 전망 >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¹⁾
종합	15	16	12	18	11	2	4	13	6	13	11	20
중소기업	24	31	19	25	25	19	19	25	19	22	22	34
가계주택	6	0	-9	13	-9	-25	-22	-13	-9	-6	-13	-6
가계일반	9	9	6	6	-3	6	9	13	0	3	0	6
대 기업	-3	6	0	6	3	-3	3	9	9	16	13	16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 보도자료. 2008년 10월 6일.

주 : 1) 한국은행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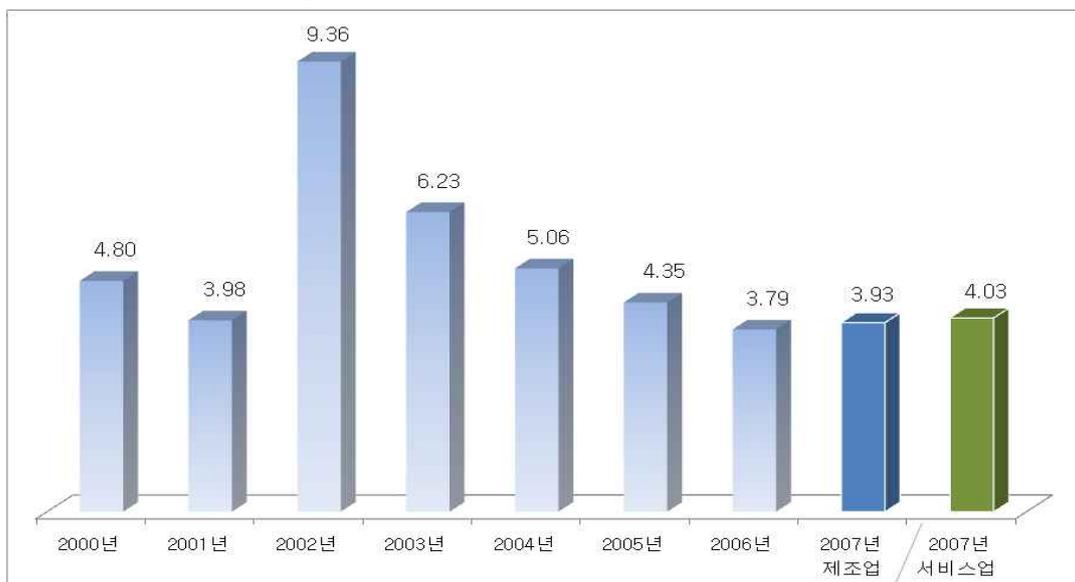
2-2 인력부족의 현황, 원인과 문제점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표면적으로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002년도에 9.36%로 피크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져 2007년도에 3.93%를 기록하여,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2007년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 기업규모별로 인력부족률을 살펴보면, 100-299인 2.6%, 50-99인 3.0%, 20-49인 3.7%, 5-19인 5.2%의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단순노무직 중심에서 기능직과 전문 기술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내용상으로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등 전문가 집단이 부족한 것은 중소기업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 단순인력 부족은 고용허가제 도입 등 외국인력 도입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전담할 전문인력 부족은 대안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 추이 >

(단위: %)

연도별	전체	직종별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 관리직	사무직
2002	9.36	9.31	9.14	10.78	11.55	3.02	6.82	4.14
2005	4.35	5.74	4.53	5.58	4.62	2.61	3.22	2.27
2007	3.93	4.97	3.79	7.40	3.16	1.57	3.53	1.74

자료 : 중소기업청, 연도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양적인 부족 못지않게, 질적인 면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14.8%)이 여전히 높은 편이며, '손끝 기술'이 중요한 기능직의 이직률(16.6%)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참고로, 제조업 전체의 평균 이직률은 2.2%에 불과함

< 직종별 이직자 수 및 이직률 >

(단위: 명%)

구분	사무 관리직	전문가	기술직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 관리직	전체
이직인원	58,067	8,270	29,498	83,621	139,149	4,962	10,402	333,969
이직률	11.0	13.2	11.6	16.6	17.2	18.1	14.7	14.8

자료 : 중소기업청, 『2007년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

주 : 이직률 = 이직인원/06년9월 현재인원...제조업 평균이직률 2.2%(2007년).

-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 12년 동안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9~2.4년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0.4~1.3년 증가에 그침
-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경험에 의한 직능습득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제조업의 규모별 근속년수 추이 >

(단위: 년)

연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95	-	4.1	4.3	5.4	6.0	6.8
'00	4.0	4.5	5.1	6.1	7.8	8.5
'05	3.9	4.6	5.4	6.6	7.7	8.8
'07	4.3	4.5	5.4	6.7	7.9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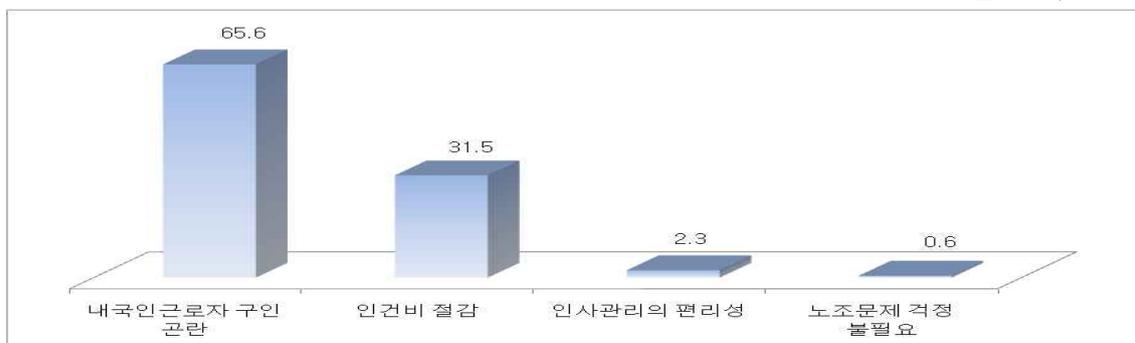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함

- 중소제조업체 중 25.7%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06년 (19.8%)에 비해 5.9%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약 100만 명으로 추정)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 구인 곤란' 65.6%, '인건비 절감 필요' 31.5%, '인사관리의 편리성' 2.3%, '노조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0.6%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유]

(단위: %)



자료 : 중소기업청, 「2007년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주요 원인

○ (청년층 인구감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전반적인 노동력 공급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감소가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인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특히 청년층 기능직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킴
- 청년층 인구는 1995년 1,259만 명에서 2000년에는 1,205만 명, 2005년에는 1,075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184만 명이나 감소함

○ (인력양성의 불일치)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은 낮아져 기초 기능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하고 있음

- 아래 표와 같이, 2001년 이후 실업고⁷⁾ 졸업생의 취업비율이 대학진학비율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취업률은 27.7%에 그침
- 실업계 졸업생의 숫자가 최근 5년간 12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그 대부분은 취업자의 감소(10만2천명 감소)임

< 실업고 졸업생의 진로 추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졸업생수	291,047	270,393	231,127	189,510	182,235	170,259
취업률 (취업자수)	51.4 (149,543)	48.4 (130,968)	45.1 (104,138)	38.1 (72,212)	33.0 (60,062)	27.7 (47,227)
진학률 (진학생수)	42.0 (122,170)	44.9 (121,411)	49.8 (115,103)	57.6 (109,234)	62.5 (113,944)	67.6 (115,164)

자료 : 교육부.

7) 현 실업계 고교는 707개이며, 전체 고교생의 33.0%를 차지함. 실업계 고교의 약15%인 91개 고교가 특성화 고교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음.

○ (낮은 처우수준과 열악한 작업환경)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수준과 열악한 작업환경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성과가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악화되어 지급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임금 및 복지수준의 격차를 초래
- 실제로 2007년의 경우, 5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규모 기업의 임금은 59.2에 불과함

< 2007년 사업체 규모별 임금총액 비교 >

(단위: 천원 %)

5~9인	10~29인	30~99	100~299	300~499	500인 이상
1,957 (49.7)	2,331 (59.2)	2,574 (65.3)	2,836 (72.0)	3,064 (77.8)	3,939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8 KLI 노동통계」, 2008.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도 젊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재해율과 사망률이 소규모 기업일수록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기업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근로자수	업무상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총 계	11,394,662	39,174(588)	0.34(0.52)
5인 미만	1,509,218	10,659(140)	0.71(0.93)
5인~49인	4,050,141	18,568(256)	0.46(0.63)
50인~99인	1,176,441	3,171(48)	0.27(0.41)
100인~299인	1,882,104	3,398(76)	0.18(0.40)
300인~999인	1,410,837	1,663(42)	0.12(0.30)
1,000인 이상	1,365,921	1,715(26)	0.13(0.19)

자료 : 노동부, 2006년6월.

○ (낮은 사회적 인식) 중소기업에 대한 '낙인효과'(stigma effect)와 잘못된 인식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일조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경쟁력, 근무환경, 제품 신뢰도 등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경영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됨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낙인효과'(stigma effect)로 인해 중소기업 기피를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조사결과⁸⁾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작다'(44.3%), '대기업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26.5%), '보호 및 육성 대상'(10.8%), '신뢰감 부족'(5.0%)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며, '경제성장의 견인차'(5.0%)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은 적은 수에 불과

<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 >

작다	대기업에 종속	보호·육성 대상	신뢰감 부족	성장의 견인차
44.3%	26.5%	10.8%	5.0%	5.0%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08.4.

8) 중소기업연구원이 20~30대 일반 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해 지난 4월1일 발표한 결과.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급여'가 5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용불안'(22.4%), '복지후생 미비'(9.4%), '열악한 근무환경'(8.2%), '독단적인 경영방식 불만'(4.7%) 등의 순이었음.

3. 정부 정책의 한계와 보완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의 평가와 한계

○ (다각도의 대중적 대책) 올해 20여 차례의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함.

- 다각도의 유동성 대책: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책은행에의 출자, 신보의 보증여력 확충, 총액대출한도 확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 신속지원(Fast-Track)절차 등 다각도의 처방을 20여 차례 제시
- 위와 같은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12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 238개 조사대상 가운데 70%에 달했음.

○ (중소기업의 신용 보장) 은행의 자본 확충과 함께 중소기업의 신용 보장이 동반되어야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 신용 보장: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내려가고 있는 시중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소기업의 신용 보장을 위한 조치가 마무리된 후에야 비로소 은행과 중소기업의 여신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임.
- 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은행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2/3에 달했음.

○ (중소기업의 인력 대책) 유동성 대책 이외에도, 중장기 대책으로서 중등교육의 혁신과 복합적으로 연결된 중소기업 인력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인력 수급의 불일치: 중소기업은 손끝 기술이 살아있는 젊은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고(수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은 대부분(70%) 대학에 진학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길 꺼려하는(공급) 인력 수급의 불일치(mis-match)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육 시스템의 재설계와 맞춤형 인력공급 대책이 필요함.

3-2. 중소기업 정책의 보완과제

○ (가칭 ‘고용투자금융’⁹⁾의 도입)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예를 들어 1인당 1억 원(최대 40억 원)의 장기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본도 확충하고 유동성 부족도 해소하는 2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가칭 ‘고용투자금융’(Capital for Work & Investment)¹⁰⁾이란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1인당 10만 유로, 사업별 최대 400만 유로의 여신을 10년간 제공했던 독일 연방부흥은행(KfW)의 프로그램.
- 여신의 50%는 무담보 후순위론(loan)으로서 중소기업의 자본을 보장하고 추가대출을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며, 나머지 50%는 담보부 선순위론(loan)이며, 2004년부터 5년에 걸쳐 1,367건(13억3천6백만 유로)의 대출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시중은행과 함께 위 제도를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임.

< 독일 연방부흥은행(KfW)의 ‘고용투자금융’ 추이 >

(단위: 건, 백만 유로)

연도	건수	금액
2004	292	197.1
2005	323	313.1
2006	321	308.5
2007	284	323.0
2008	147	194.3
합계	1,367	1,336.0

자료 : 독일부흥은행(KfW).

주 : '04년은 3월~12월 실적이며, '08년은 1월~10월 실적.

9) 독일 연방부흥은행(KfW)에서 2004년부터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줬던 제도.

10) 자세한 내용은 맨 뒤에 첨부된 자료(‘독일 연방부흥은행(KfW)의 고용투자금융’)를 참고하기 바람

○ (가칭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실업계 고교 재학생에게 가장 큰 3가지 과제(①취업, ②병역, ③대학 진학)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가칭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고 대학 진학을 지원함

- 첫째,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수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실업계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병역근무(사회복무)로 인정(가칭 '중소기업 사회복무제')함으로써, 위 3가지 과제 중에서 ①취업, ②병역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함
 -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1~2개의 병역특례TO를 특권층과 뒷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가칭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는 그 권한의 활용여부와 근무기업 선택권을 실업계 졸업생에게 부여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제거함
 - 이 제도¹¹⁾를 통해, 대부분의 고교 재학생이 대학 진학을 지향하고, 특성 없는 대졸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비용을 높여가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함
- 둘째,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③번 과제('대학 진학')도 해결함
 - 군복무를 대신하는 기간(예: 3년)의 연봉을 중소기업의 사내에 적립(예: 3천만 원)하여 대학 진학시에 학비로 지원한다면,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도 가능하므로, 정부-중소기업-대학-근로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모델이 됨
 -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의 연계교육(2+2)을 통해 10만 명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초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産學패키지 사업을 추진. 이러한 기초기술 인력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필요한 경비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 가칭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요약 >

현행 사회복무제	(가칭)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 대상 : 신체 일부 장애 있으나 정상적 사회 활동 가능자(4급 및 5급 판정자)	- 대상 : 현역, 보충역 및 제 2국민역 판정자 (신체 일부 장애 있으나 정상적 사회활동 가능자 포함)
- 배정요원 : 사회봉사요원(공익포함)	- 배정요원 : 기능 및 기술 전문요원
- 복무분야 : 장애인 노인수발, 가출청소년 자활 후건 등 사회복지분야, 산불 환경 문화 재, 해양투기감시, 지하철 안전 등 환경안전 분야	- 복무분야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혁신형 중소기업 (제조분야) 근무
- 선발인원 : 19,000명('08)→26,000명('09)→3만명('10~'11)→52,000명('12)	- 선발인원 : 연간 5만 명(연차적으로 확대)
- 선발방안 : 기업에서 자체선정	- 선발방안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중기청에서 자격을 부여
- 복무기간 : 22개월	- 복무기간 : 36개월

11) '실업계고 군면제-해외근무 시키자'(매일경제, 2008년11월18일자, 인터뷰 기사)

- (정책 금융의 확대) 중소기업 금융 시장은 특성상 경기 요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금융을 경제 규모에 맞게 일정 수준으로 증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정책 자금 확대 :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자금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를 매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규모는 2005년에 3.16조원, 2006년 2.85조원, 2007년 2.83조원, 2008년 2.6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정책 자금을 대한 위험분담 시스템의 구축) 시장 실패에 의한 긴급한 정책 금융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운용상 위험도를 정부(보증기관)-은행-수혜기업이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위험분담원칙의 명확화 : 긴급한 정책금융의 경우 시장 기준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그 대상이 되어 집행주체(보증기관+은행)에 의한 지원이 역행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금융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집행주체에게 재정 손실분의 보전을 보장하고, 신용평가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리스크가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여야 함

- (수요자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수요변화와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능별·학력별로 분절된 인력공급 체계(아래 그림 참조)를 개선하여, 산학협력에 의한 인력양성 체제로 개선해야 함
 - 첫째, 산업현장과 실업교육 기관과의 인적교류 확대
 - 현재, 산업계 인사를 실업고 교교의 산학겸임교사(전문대의 겸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많은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
 - 따라서 기업체의 퇴직인력 가운데 일정 조건을 구비한 사람을 공업고교의 초빙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 둘째, 산학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교류 체계와 인센티브 설계
 -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적기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산학간 협의채널을 상시화하고 효율성을 제고
 - 산학협력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육훈련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고용보험 환급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 셋째,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상시적인 기술 보수교육 체제 구축
 - 중소기업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언제, 어디서나 '폴리텍대학'(舊 기능대학)에서 신기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
 - 재직증명서만으로 전국 23개 '폴리텍대학'에서 원하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육과정을 개편 (예: 3개월, 6개월, 1년의 '디플로마'(diploma)과정을 학점은행과 연계)

○(중소기업 근무의 '非급여' 인센티브 확대) 낮은 처우수준¹²⁾을 보완할 수 있도록 非급여 인센티브를 확대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우대 제도(자녀 학자금, 공공주택 공급, 자녀 해외연수 등의 '非급여' 인센티브)를 확충
 - 예를 들어, 고용보험 사업의 학자금 대부사업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 ('05년 학자금 대부자 중 중소기업 비중은 40%)하고,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해외연수 사업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표한형 (3669-4131, raisosa@hri.co.kr)
 연구위원 김동열 (3669-4112, dykim@hri.co.kr)

12) 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낮은 처우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중소기업 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별첨> 독일 연방부흥은행(KfW)¹³⁾의 '고용투자금융' 소개

- Capital for Work and Investment -

- Entrepreneur Capital (Programme No 054, 055/056,057) -

○ 목적

- 독일 정부와 연방부흥은행(KfW)은 실업률 개선, 기업의 차입여건 개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Capital for work and Investment" 프로그램의 도입을 합의
- 2002년 11월 1일 도입된 이 제도는 독일 '적녹연정' 당시의 하르츠 위원회(Hartz Commission)¹⁴⁾에 의해 제안된 실업자(job floater)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제도의 개요

-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KfW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지원 Package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실업자 1인당 10만 유로까지 받을 수 있음. 금융지원 Package는 최장 만기 10년이며, 이 지원금은 자본금(후순위Loan)과 선순위 Loan으로 구성됨(구성비율 각각 50%)
- 사업당 한도금액은 400만 유로이며, 만기는 최장 10년 이하이며, 금리는 시장금리 대비 우대금리 적용
- 지원은 거래 은행(On-Lending Bank)을 통해 '轉貸'방식으로 지원됨
- 지원 대상 기업은 실업자에게 정규직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 차입 수요가 있고, 설립 후 5년 이상된 영업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거래 은행의 신용 확인서가 있어야 함('08년 이후 '설립 후 3년'으로 완화)

13)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독일 연방정부 80%, 지방정부 20%의 출자로 1948년에 설립된 국책금융 기관으로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산하에 중소기업은행, 개발은행(개발도상국 지원), 육성지원은행(SOC개발 지원), IPEX은행(수출지원) 등 4개의 은행을 두고 있음. 대출은 민간 은행을 통해 집행하며, 투자는 벤처캐피털을 통해 이뤄지는 '전대'(轉貸, On-Lending)방식을 활용하며, 대출과 투자 심사 때 KfW는 직접 관여하지 않음. KfW는 실적을 평가하며 운용회사를 결정할 뿐임.

14)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이사였던 '하르츠'가 위원장이 되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자 대책을 전담했던 위원회

○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선순위 Loan

- Loan부분은 5만유로를 한도로 KfW promotion loan으로 제공됨. 담보는 기업의 일반담보로 제공되며 신용위험은 거래은행이 가져가고 거치기간 2년이 제공됨

2. 자본금(Subordinated Loan)

- 나머지 5만유로는 후순위Loan으로 지원됨.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자본금 확충)하여 추가적인 차입이 용이하도록 함. 이 부분에 대한 담보제공은 필요 없음. 독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을 거래은행(On-Lending Bank)에 제공함.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임
- 또한, 금리 수준은 자본시장 최저 수준임

3. 대상 사업자

- 독일에 투자하는 독일중소기업, 외국계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외국에 투자하는 독일중소기업, 외국계중소기업, 자영업자
- 중소기업(민간부문 소유지분 50%이상, 연결기준 매출액 5억유로 이하)
- 자영업자(의사, 회계사, 건축사 등)
- 기타 설립 후 5년 이상 영업활동중이며, 재무상황이 건전한 기업

4. 대상사업

- 고용을 창출하면서 자금수요가 있는 모든 장기 투자사업, 예를 들어 부동산(빌딩 등)구입, 건설, 기계장치 구입, 회사인수 등 (단, 고용창출효과 관련 보고서(양식 141 660호) 제출은 필수)
- 투자자금의 20% 한도에서 운영자금 지원도 가능

5. 지원한도: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가능

(단, 사업당 한도는 400만 유로)

6. 대출형태: 선순위 Loan과 후순위 Loan으로 구성(단, 구성비율은 5:5)
7. 만기: 각 Tranche 모두 10년 이하
8. 이자율
 - 고정금리 적용
 - 거래은행은 회사신용도 및 담보상황에 따라 KfW가 제시하는 4개의 Category로 구분(단, 각 Category의 금리 상한 이내에서 최종 적용)
9. 인출: 100% 일시 인출
10. 용자약정수수료
 - 0.25%/월(未인출 잔액에 대하여 용자약정 후 1개월 후부터 적용)
11. 상환: 2년 거치 후 만기까지 每6개월 분할상환
(단, '후순위론'은 만기 해당하는 해에 년 2회 분할상환)
12. 조기/중도 상환: 불가능
13. 담보: 일반 담보. (단, 후순위론(loan)은 담보 필요 없음)
14. 적용방식: On-Lending 방식(대출 희망자는 거래은행에 용자 신청)

○ 대출 실적

< 연방부흥은행(KfW)의 '고용투자금융' 실적 >

(단위: 건, 백만 유로)

연도	건수	금액
2004	292	197.1
2005	323	313.1
2006	321	308.5
2007	284	323.0
2008	147	194.3
합계	1,367	1,336.0

자료 : 독일 연방부흥은행(KfW).

주 : '04년은 3월~12월 실적이며, '08년은 1월~10월 실적.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하반기 실질임금 환란 이후 최악

- 한국은행과 노동부에 따르면 하반기 실질임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요인과 명목임금의 하락으로 3/4분기 -2.9%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실질임금 증가율은 2008년 1/4분기 2.3%, 2/4분기 1.6%에서 3/4분기는 명목 임금 증가율(2.6%)과 물가 증가율(5.5%)로 인해 -2.9%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두드러짐
 - 또한 실질임금과 취업자 수의 곱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총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구매력도 1999년 1/4분기 -1.3% 이후 2008년 3/4분기 -1.8%를 기록함으로써 환란 이후 최악의 구매력 상황을 보여줌
 - 이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로 명목임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 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0월	11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3.8(0.5)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1	-3.7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6.1	-7.7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23.9	-
		수출	14.4	14.1	9.4	18.2	17.4	23.1	27.1	8.5	-
	공급	광공업생산	8.4	6.8	5.9	10.8	10.6	8.6	5.6	-2.4	-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73	2,385	2,382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0	3.0	3.1
수입		18.4	15.3	7.3	25.9	28.9	30.5	43.0	10.4	-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	-86	49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65	3	-80	-20	-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1.3	10.7	7.8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1	4.8	4.5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국채 금리 연중 최저치 경신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혼조세

- 금리: 단기금락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 (국채 10년물 : 2.12→2.18%)
- 환율: 유로화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지수가 26년래 최고로 상승하면서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반면, 엔화는 일본이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달러화에 대해 소폭 약세로 전환 (\$/€ : 1.3913→1.4013, ¥/\$: 89.32→90.46)

○ (국내 금융 시장) 안전 자산 선호 현상 강화

- 주가: 뉴욕증시 약세, 글로벌 경기후퇴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180.9→1,117.9)
- 금리: 주초반 단기 금락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세로 출발하였으나,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어 연중 최저치 경신 (국고채 3년 수익률: 3.81→3.68%)
- 환율: 주초반 연말 결산을 앞둔 은행권의 달러매수세 유입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였으나, 외환당국의 매도개입설, 수출업체를 네고물량 출회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전주말 대비 소폭 강세 시현 (1,290.0→1,299.0)

○ (전망) 연말, 연초 영업일 축소로 금융시장 소강세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4	3/4	4/4	1/4	2/4	3/4	12.19	12.26
국내	거래소 주가	1,743.6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80.9	1,117.9
	국고채3년(%)	5.26	5.46	5.74	5.10	5.90	5.74	3.81	3.68
	원/달러	923.8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90.0	1,299.0
해외	DOW	13,409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579	8,469
	Nikkei	18,138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588	8,599
	미국채10년(%)	5.02	4.59	4.02	3.87	3.97	3.82	2.12	2.18
	일국채10년(%)	1.88	1.69	1.51	1.45	1.60	1.47	1.23	1.21
	달러/유로	1.3542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13	1.4013
	엔/달러	123.18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89.32	90.46
	두바이(\$/배럴)	66.42	76.64	89.06	97.66	136.65	90.60	40.46	36.88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2.24) 기준.